불교인문학살롱

❸ 백거이의 삶과 문학세계

▶유한근 문학평론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현대불교문학의 이해〉, 〈한국 수필비평〉, 〈원 소스 멀티-유스, 문학이야기〉, 〈인간, 불교, 문학〉 등의 저서가 있다. 만해 불교문학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신곡문학상 대상, 여산문학상, 동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간과문학〉 주간.



쓸모있는 문학 추구…'불교 미학' 차용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당송팔대가로 거론되는 시인은 아니지만, 두보와 이백과 함께 당을 대표하는 삼대 시인의 한 명이다. 자는 낙천(樂天)이고, 호는 향사거산(香士居山) 혹은 취음선생(醉吟先生)이라 불린다.

백거이는 29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 35세 때 창안의 현위 벼슬로 할 때 자신의 대표작이 된 〈장한가(長恨歌)〉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후 풍자시 〈신악부(新樂部)〉 50수와 〈주증금〉 10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58세가 되던 해 시와 술과 거문고를 삼우(三友)로 삼아 '취음선생' 이란 호를 쓰며 나날을 보내다가 옛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자 용문의 여러 절들을 순회하며 지내다가 향산사(香山寺)를 보수 복원하여 '향산거사' 라는 호를 쓰게 된다.

이로써 백거이 시인은 유교, 도교 시인으로부터 불교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유백창화집(劉白唱和集)〉 5권, 〈백씨문집(白氏文集)〉 67권을 사찰에 봉납하기도 한다. 71세 때에 이르러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추증받고 정계를 물러서지만, 백거이는 조종의 불교탄압정책을 대응하는 풍자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다. 75권의 전집의 편정(編定)이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의 시를 일별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불교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백씨 장경집(白氏長慶集)〉50권과 〈백씨문집(白氏文集)〉에 정리된 시 2200수는 문장이 짧고 평이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그것은 그의 시가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인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자아 구현의 시와 현실구현의 시적 경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백 시의 몽상적이기 보다는 두보 시의 리얼리티가 강한 시를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백거이의 시 세계는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유교적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다가 차츰 도교와 불교사상 속으로 들어가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백거이가 불교를 모티프로 쓴 초기의 시에서 주목되는 시는 사찰 짓기로 혈안이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귀족들을 비판한 시 '양주각(兩朱閣)' 이 주목된다.

"절 문에는 임금이 써 준 금빛 글자가 걸려있고, 비구니 스님의 암자나 절 마당은 마냥 넓기만 하여, 푸른 이끼. 밝은 달이 비쳐 한가롭기만 하다. 하지만 겹겹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에는 몸 둘 곳조차 없구나"라고 그의 나이 38세에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절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살아야 할 데를 침범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벼슬아치와 절 식두들을 비판하는 시를 쓰면서 불교를 모티프로 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년 후 백거이는 어린 딸 금란과 모친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극도로 상심하여 '자각(自覺)' 이라는 시를 쓰게 된다. 이 시에서 백거이는 불교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엿보인다. "나이 40은 아직 늙은이라 못하겠지만,/ 슬픔에 시달려 벌써 골이 못쓰게 되었네/(…)/두려워 말고 슬퍼하지 않음이/ 노병을 없애는 약이리라/(…)/나는 들었노라 불교의 가르침에/ 해탈문이 있다고,/ 마음을 명경지수 같이 가지고/ 몸을 뜬 구름같이 보고,/띠끌이 묻은 옷을 떨어 버리고,/ 생과 사의 테두리로 벗어나리라/맹세하리라! 지혜의 물로/번뇌의 먼지를 영원히 씻고,/ 장차에는 인간적인 은애의 정에 엉키어 걱정과 슬픔의 씨를 뿌리지 않겠노라"라는 깨달음을 시로 노래한다.

이 깨달음은 불교가 해탈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는 사실이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물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시로 이 시를 정점으로 하여 그의 불교시는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대표하는 삼대 시인으로 평가
35세에 쓴 '장한가'로 이름 널리 알려
모친과 어린 딸 잃으며 불교에 귀의해
리얼리티함이 강점… 공리 추구 특징
고통 극복 문예사상으로 '불교'를 선택

다. 이 시 속에는 인간의 모든 번뇌를 불교 교리의 핵심인 사성제(四聖諦)로 이해하고, 시인은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토로한다.

따라서 이 시는 '죽음' 이라는 인간의 기본문제를 딸과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선험하여 그것의 극복방안을 유교나 도교의 경전보다는 불교의 중심 교리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시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창작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의 제목인 '자각(自覺)' 이라는 제목이 주목된다. 주제를 시의 제목으로 정하는 대표적인 예인 셈이다. '자각' 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을 말한다.

또한 이 말의 불교사전적 의미는 "삼각(三覺)의 하나. 스스로 깨달아 증득(證得)하는 각(覺)을 이른다" 부처의 깨달음을 이른다는 의미이다. 자각은 세가지 깨달음의 하나로 스스로 깨닫는 경지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문학과도 연결된다. 자아 성찰을 통해 깊은 사유를 이르러 작은 깨달음에 갖게 되는 문인들의 창작 태도와 불교 수행 방편의 과정과 목표가 같음을 백거이는 이 '자각' 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초상화. 자는 낙천(樂天)이고 호는 취음선생(醉吟先生) · 향산거사(香山居士)이다.

시 '출부귀오려(出府歸吾廬' 는 백거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며 62세에 지은 시이다, "퇴청하여 내 오두막 돌아오니/조용히 편하고 마냥 한가로워라/더욱이 찾아 와 만나자는 손 없고/이따금 절에는 중이 병문안 올 뿐/집에는 머슴아이 십여 명이 있고/…/몸을 한적하게 지니면 스스로 기품도 고귀하게 될 것이니/어찌 반드시 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건가//…//오직 부귀의 이름만이 있을 뿐/실재로 부귀는 누리지 못하노라"며 모든 것, 관직이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자적하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시 "이따금 절에는 중이 병문안 올 뿐"에서의 절과 중은 장기근이 편저한 〈백낙청〉에서는 "태화 6년부터 향산거사라는 호를 지었으며 이때 내왕한 중은 주로 낙양의 서남쪽 향산사의 중여만(如滿)"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듯 백거이는 사찰과 스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시 세계를 확충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통치 구조인 유교와 토착 종교 이기도 한 도교사상에 불교사상을 작품 속에 차용하는 문제는 위세서 살펴본 시 '자각' 과 시 '화신광(和晨光)' 에서 불교 사상의 현실 극복과 작품 수용의 우수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 칭송하게 된다.

또한 백거이 시인은 70세를 넘기면서 쓴 시 '달재낙천행(達哉樂天行)' 에서는 시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서두 부분에서 요약하여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득도의 경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 "깨닫고 달통한 백락천은/낙양에 파견된 지 13년"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 서두에서는 유교적인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시로 보면 리얼리티 시 혹은 이야기 시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칠순이 되자 이내 벼슬을 사직하고/봉록이 반감되기 이내 벼슬을 사직하고//…//지금 내 나이 이미 71세로/눈 어둡고 수염 희고 정신 흐리니/아마도 내 몫 다 쓰지 못하고/아침 이슬보다 빨리 황천에 가리라/허나 죽기 전까지는 더 산다고 나쁠 것도 없으니/허기지면 먹고 즐거우면 마시며 조용히 잠을 자리라/사나 죽으나 별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노라/깨닫고 달통했도라 백락천은 달통했노라" (장기근 편저 〈백낙청〉 참고)라고 곧 닥쳐올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노년의 안온한 삶을 노래한다. 이 시의 경우에는 백거이의 투철했던 노장사상이 차용된 시이다. 이 시의 제목 '달재낙천행(達哉樂天行)' 이 그것이고, 이 시의 후반부의 "/사나 죽으나 별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노라"가 그것이다.

그러나 "깨닫고 달통했노라 백락천은 달통했노라"라는 마지막 시구절은 도교와 불교사상을 수용한 노래(行)로 보여진다. 특히 '깨닫다' 에 함유하고 있는 의미로 보아서도 그러하고 백거이의 시 '자각' 에서의 의미로 보아도, 이 시에서의 "깨닫고"는 '자각' 과의 맥락에서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불교와 문학이 만나는 자리를 나는 '깨달음' 의 자리로 인식한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그곳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깨달음' 을 다른 이름으로 지혜라 지칭할 때, 불교와 문학의 접점은 자명해진다. 불교의 깨달음의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문학의 경우에도 장르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시의 경우에만 보아도 시의 경향이 다양한 것처럼 고대시의 경우에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거이 시의 경우에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의 시의 경향은 이백의 활달하고 판타지적인 시의 경우와는 달리 두보시의 경향에 속하지만, 리얼리티한 현실적인 시 경향에 유 · 불 · 선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보와는 변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공리성을 중시는 문학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쓸모없음의 문학이 아니라 쓸모있음의 문학으로써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극복의 방안을 종교사상에 의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백거이는 불교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삶의 고통을 일탈하기 위한 문예사상으로 불교미학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백거이 시를 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9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3월 6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6개월 과정
● 매주 월/화요일 2시~5시(3시간) ● 실관/통변중심 강의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전과목 동영상무료시청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과목 월 30만원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다산밀축사주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